음절(συλλαβη)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들

1)형이상학

1-1) Mδ2. 1013b18: 철자들은 음절의 원인-4원인 중 질료 원인-이다.
형상 : 질료 = 우시아 : 요소(τὸ ὄν)?
사물(살)의 요소(τὰ στοιχεῖα, 1041b13)가 음절로 **비유**된다.

1-2) Mζ17. 1041b12(논자1, 536; 논문1, 211, 692, 1486): 음절의 존재 원인은 그 음절의 본질(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과 아르케애이다-음절을 이루는 철자들은 그 요소들일 뿐이다.

1-3) Mη3. 1043b5: -음절의 존재 원인은 에이도스(있어오고있는 그 무엇, 본질)이다.

1-4) Mγ1, 1087b36: 리듬의 척도(하나)로서의 음절과 박자.

1-5) Mν5. 1092a26: 음절은 함께놓여짐(συνθέσει, 1029a26; 논자1, 831)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2)범주들

2-1) 6. 4b33(논자1, 126): 음절은 말(로고스, 끊어진 량의 범주)의 척도이다.

2-2) 12. 14b2: 문법에 있어서는 음절보다는 요소들이 그 순서에 있어 '먼저'이다
여러가지 먼저 중의 하나

3)해석에 관하여

3-1) 4, 16a48, b31: 사람의 음절(사와 람)은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로고스란?)
음절은 의미 단위가 아니다?

4)토피카

4-1) Tζ4. 141b9: 음절보다는 철자가 그 인식에 있어서는(γνωριμώτερον, 141b5)먼저.

4-2) Tζ13. 150b2: 음절은 철자와 쉬모오한 어떤 것이 아니다 - 전체가 부분과 쉬모오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설명하는 보기(例).

5)시학

5-1) Πο20. 1456b34: 언어(λέξεως, 1450b13, 1456a34)의 요소들 8가지 - 철자, 음절,.....
로고스.
5-1-1)철자는 나뉘어질 수 없는 소리(1456b22, 논문집29, 87a)- Σ와 P

5-2-1)음절은 소리와 비소리가 합쳐진, 가리키지않는 소리(1456b34) - ΓΡΑ.
(무 의미?)

5-2-3)합쳐진, 가리켜진 소리(1457b3)-로고스 → 플라톤(이름+레에마)
세 가지 가능한 의미(테., 206c-210b;
책14, 콘퍼드, 154)

5-2-4)이름들(Πσ21. 1457a31)

5-2) Πο21. 1458a2: 확장된 이름은 외부 음절이 끼어든 것이다.

6)수사학

6-1) Pγ2. 1405a31: 비유는 어긋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유되는 <낱말>의 음절이 소리가 가리키는 것을 <지시하기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2) Pγ29. 1436a10: 같은 이름은 같은 음절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음절안에서 쓰여진(γράματα, 1436a10)것들은 동일한 것들이다.

7)동물의 발생

7-1) Zγα18. 722a32: 쓰여진 이름은 각각 음절들로부터 온다

비유(μεταφορά, 은유?)에 관한 텔레스의 로고스들

1)형이상학

1-1) 1015a11(논자1, 529): 모든 **우시아**는 **비(은)유**적으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
유비적으로 보면 아르케애와 요소는 동일하다(1070a30).

1-2) 1014b3(논자1, 524): **요소**는 '**있는** 하나'라고 **비(은)유**적으로(**μεταφέροντες**, 1413 ,논자1, 526) 말하여진다
모음은 끈과 같다(**διαφερόντεως**, 소., 253a4; 데거, 책 14-4, 518)
모든 인식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관계지우는(**ἀναφέρειν**파이돈, 76e1, 75b4; 아리, 노트17, **ἀναλογὶστεσθαι**, 테., 186a10)것이다
닮게 하는(**προσεοικένα**) 것이다

1-2) 991a22: 원형으로서의 **이데아**는 시적인 **비(은)유**일 뿐이다(Rorty, 수사학, 357).

1-3) 1024a8, 1019b33, 1021b29

2)시학

2-1) 1457b6(논자2, 196; 논문1, 97): **비(은)유**는 *이름*이 말하여지는 8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서, 어떤 이름을 다른 것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은 다음과 같이 4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1-1)류의 이름이 그 류의 종들 중의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2-1-2)종의 이름이 그 종의 류에 적용된다(로티, 수사학, 336)
2-1-3)종의 이름이 그 종의 류의 다른 종에 적용된다.
2-1-4)**유비**적인(κατὰ τὸ ἀνάλογια, 1457b9; 논자1,1201; 논문1, 97)**비(은)유** 방식 → A : B = C : D의 경우, D의 이름이 B에 또는 그 거꾸로 적용된다.
이름 : 자음 = 레애마 : 모음(?, 논문집15, 라일 240a)

2-2) 1459a10: **비(은)유**는 **같은 것**(τὸ ὅμοιον, 1459a8)에 관한 이론이다-가장 중요함.

3)수사학

3-1) 1401b36: 4가지 **비(은)유** 중 대 부분의 것은 **유비**적이다.

3-2) 1413a15: Proverbs(αἱ εἰκόνες, 1413a13-14, 직유)는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비(은)유**(2-1-3)이다.

3-3) 1412b35: 성공적인 similes(αἱ εἰκόνες, 1412a32, 직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비(은)유**(2-1-4)이다.

3-4) 1407a10-14: 성공적인 **비(은)유**는 분명히 similes이기도 하다. 물론 그 거꾸로도 가능하다.

3-5) 1406b3: 이암브리크의 시에서는 **비(은)유**가 자주 쓰임.

3-6) 1405a3-b21: 시에서는 **비(은)유**가 가장 가치있다.

3-7) 1404b32: 각운법을 제외하면 **비(은)유**가 시에 가장 유리하다.

4)토피카

4-1) 140a9: **비(은)유**는 **같은 것**을(κατὰ τινα ὁμοιότητα, 140a1-12)가리킨다

4-2) 139b32: **비(은)유**는 항상 애매하다(ἀσαφὲς, 139b34).

5)니꼬마노프 윤리학

5-1) 1115a15: 비(은)유에 의해서 뻔뻔함은 용기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

5-2) 1149a23: 비(은)유에 의해서 자기-탐닉과 절제는 incontinence와 continence라고 불리워진다.

음절(συλλάβη)에 관한 플라톤의 로고스들

1)소피스테애스

논문1, 209; 논자1, 1485; 논문집3, 166; 논문집15, 라일, 139b, 237a; 논문집29, 라일, -2a)

1-1) 258a1: 음소들(τὰ γράμματα, 253a1)을 류(종)들로 <**비(은)유**함>(책14, 콘퍼드, 261; 논문집15, 라일, 431; 책 15, seligman, 52)

이름 : 자음 = 동사 : 모음(논문집15, 라일, 240a)
음절 : 문자 = οὐσία : τὸ ὄν ?
큰 문자 : 작은 문자 = 도시 : 사람(211, 로빈슨, 초기변)
같다(논자2, 199; 논문1, 93)
:음소들은 류들과 **같다**(논문집3, 107)
Rowe, 정치가, 203-자연술은 정치술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음소들을 류들의 **보기**(οἷον, 例, **소.**, 253a3, 5; 테., 207a1; 책44-1, rapp, 214; 논자1, 158-범., 1b12, 508, 534, 1087, 1249, 1486, 형., 1041b32; 로빈슨, 초기변., 208)로 들음.

: 모음없이 철자들은 음절로 될 수 없다(책19, bluck, 131; cf. 테., 197d).
:모음(τὰ φωνήεντα, 소., 253a4; 논자1, 1485; 책14-1, 켐벨, 143)은 being을 가리킨다-동일헤테론도 가리킨다(논문집29, stephen, 99a1, 비교된다)
:모음은 δεσμὸς(소. 253a5; 논문1, 210; 논자1, 1484, 크라틸로스 427b2; Palmer, 120; 티., 31bc; 번역 216; 로빈슨 초기변, 209)와 같다
:모음의 비(은)유(the analogy of vowels, 논문집3, 107; 책19, bluck, 116; 오웬, 변증법, 99)-ἀναλογία(영헬사전, I, 94b)
:모음은 being과 같다(책21, 로스, 113; 논문집3, 168; 논문집1, 195)

:형이상학적인 term인가 아니면 언어적인 term인가?

2)테아이테토스

2-1)203a7: 음절은 문자의 요소들(τὰ τῶν γραμμάτων στοιχεῖα, 202e6)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이름 Σωκράτους(203a6)의 첫 음절 'Σω'는 그 요소 'Σ'와 'ω'로 이루어진다.
:이름과 레애마(동사)의 연결(σύνφεσις, 소., 262c1, d3; 논자1, 133) 이 바로 로고스이다.

요소들은 실제 대상의 아르케애의 예(논문집29, 295)
: 그 요소들 세 가지(τρίτον εἶδος γραμμάτων, **필레보스**, bury, 들어가기37)

a: ἄπειρος한 φωνὴ의 세 가지 나뉨들(bury, 들어가기, 37);
τὰ ἄφωνα(필., 18c4)↔ㄱ)소리아닌(ἀφώγων, 테., 203b3)단지 소음(ψόφος, 테., 202b3)
논문집29, 87a 뿐인 것-예를들어 Σ (혀꼬부라지는 소리)
τὰ ἄφθογγα κατὰ ἄφωνα(필., 18c4)↔ㄴ)소리도 소음도 아닌 것-예를들어 B
τὰ φώνηεντα(필., 18b8)↔ㄷ)소리인 것(φωνὴν, 테., 203b7)-모음

: 음절 'Σω'를 인식하는 자는 그 요소들 'Σ'와 'ω'도 반드시(ἀνάγκη, 테., 203d7)인식한다(γιγνώσκει, 테., 203d2)

: 그러나 음절은 그 부분들의 모두와 전체(τὸ πᾶν καὶ τὸ ὅλον, 204a11)와 헤태론(ἕτερον, 204b3; 논문1, 212)하다
음절은 그 요소들이 합쳐질 때(συντεθέντων, 203c6)생겨나는 단일한 이데아(ἰδέαν, 203c5-6; 거드리5, 116; 책35, 스텔젠, 43; 켐벨, 테아이테토스, 192, 224-5)이다

:따라서 음절은 이데아의 보기(παραδείγματα, 테., 202e4; 정치가, 277d1;거드리5, 173, illustration, 책14, 콘퍼드, 153; 거드리5, 115, 117; 例)

2-2)202a3: 이름을 이루는 음절(테., 208a3)들의 모든 요소(문자, 철자)를 열거(ἀποδοῦν -αι, 207a1)한다고 해서, 그 이름 'Θεαίτητον'(207e7)를 아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차를 이루는 음절들의 모든 요소를 열거한다고 해서, 그 마차의 **우시아**(207c3)를 아는 것이 아니다.

①이름과 술어(레애마, 동사)를 지닌 소리를 통해 어떤 사람의 생각(διάνουν, 206d1)을 보여주는 표현
②모든 요소들의 열거
③각기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τι σημεῖον, 208c7)
로고스가 가리키는(σημαίνειν, 206c7-8)세 가지 무엇.

:따라서 만약 로고스(λόγον, 테., 207c7)가 '모든 요소의 열거'라면 앎은 '옳은 의견 더하기 로고스'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때때로 헤태론한(207d5)두 가지 것의 부분이라고 여겨진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자(207e1) 'θ'와 'ε' → 헤태론한 두 가지 것의동일한 부분-음절 'θε' 이름 Θεαίθητον과 Θεόδωρον

:그래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아기가 'Θεαίθητον'를 연이어 썼다고 해서, 동일한 그 음절 'θε'를 아는가? 모른다. 테오도로스의 '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로고스가 모든 요소들의 열거라면 아니다. 둘 셋 네 번째 음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모든 요소들을 열거한 결과 그 요소 (στοιχείου, 208a9)의 완전한 목록(논문집29, 라일, 33)이 곧 로고스가 옳은 의견에 더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 음절 또는 이름들을 아는 것은 아니다.

3)정치가

3-1)277e7(277d9-278c2; G.E.L.Owen, 논리, 140쪽): 아이들이 문자(γραμμάτων, 277e3)들을 인식(γίγνωνται, 277e4)하는, 특별한(278e6) 예(例, 보기)는 앎(τὴς ἐπιστήμης, 277d7)을 얻어내는 (ㄹ)예의 (ㅁ)예(ἄλλῳ παραδείγματι, 278e7, 例)이다-귀납의 일종으로서의 유비-가장 가까운 지시-보기(로빈슨, 초기변, 210, 212)이다.

:'(ㄹ)'은 커다란 공동체를 양육(τοῦ βασιλέες, 278e7)하는 정치술을 인식하는 例
:'(ㅁ)'은 아이가 가장 짧고 단순한 음절(277e7)안의 각기 요소(τῶν στοιχέων, 277e6)는 인식(277e8)하나, 다른 음절 안의 그(요소)것들은 인식하지 못할 때, 인식시키는(278ab)例이다.

:아이에게 인식하는 (음절)과 인식하지 못하는 (음절) 이 양자의 같은 자연(ὁμοιότητα καὶ φύσιν, 278b1; 논자4, 932; 로빈슨, 초기변, 210/동일한 에이도스(1278e8, G.E.L.Owen, 논리, 146/동일한 프라그마(279a8, 〃)을 분명하게 해 준다. 이때 인식된(γιγνόμενα, 278b4-5)(문자, 철자)가 인식되지 않는 (문자)의 例(παραδείγματα, 278b4)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것(278d1)의 요소들을 인식하게 된다.

: 그 유비(거드리5, 173; Rowe, 정치가, 203; Scodel, 정치가, 106; G.E.L.Owen, 논리, 140)

같다(논자2, 199; 논문1, 93)
아는 음절(의 철자) : 모르는 음절(의 철자) = 직조술 : 정치술
: 프라그마의 길고 어려운 음절 = (279a-283a)
(278d4-6; 논문집29, 953)

4)필레보스

5)국가 3, 402(education in μουσική, 켐벨, 책14-1, 253)

2-2-3)존재 유비

그렇다면, 유비는 각기 것의 서로에 **대해 있는** 방식(관계)를 말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있는 것)을 말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 하나일 뿐이지, 있는 모든 방식(길 또는 양상)이 아닐 뿐더러, 유비적으로만 있는 것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1]. 이러한 존재 유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감마 편 2 장에서 도드라진다.

>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와 어떤 자연 하나에 대하여(πρὸς ἕν, 1a33), 그리고 호모뉘모오스하게(ὁμωνύμως, a34)가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 각각이 건강에 대하여 말하여지는 것처럼, 말하여진다(1003a33-35)"

예를들어 '어떤 것이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건강에 **대**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보존하기에, 아니면 건강을 생산하기에 , 아니면 건강의 징후(τῷ σημεῖον 1003a36)이기에, '건강하다' 라고 말하여지며, '어떤 것이 치료제이다'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치료 능력 또는 기교가 있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에 적용되든지, 아니면 치료 능력의

---

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관계이외의 우시아(실체), 량, 질 등의 범주들이라고도, 진리 또는 거짓이라고도, 뒤나뮈스 또는 에네르게이아라고도 있는 것은 말하여지기 때문이며, 있는 것은 유비적인 방법 뿐 아니라, 삼단논법을 통해서도 말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르곤(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것이 건강에 **대해** 그리고 치료적인 것이 치료에 **대**해 **있**듯이, '있는 것들(τὰ ὄντα)은 우시아(οὐσία)에 **대해 있다**' 라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대해 있음**(관계)에 4 항 비례 유비를 적용한다면 아래의 식이 나타날 것이다.

④-7) 건강한 것 : 건강 = 있는 것들 : 우시아(실체) = 치료제 : 치료
(πρὸς, 1003a35)
對해 **있음**(εἶναι[2] 1003b3)

2) 이러한 'εἶναι πρὸς τι'(어떤 것에 대해 있음)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의 '.....πρὸς ἄλληλα.....ἔστι'(서로에 대해 있음, 166c4)와 비교 될 수 있으리라.

폴리티코스 번역

“오, 신적인 영감이 있는이여! **예들**(παραδείγμασι, 277d1)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충분하게 증명(ἐνδείκνυσθαι, d2)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네. 우리들 각자는 **예를들어**(οἷον, d3) 꿈 속에서 모든 것 각 각을 보아 알았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모든 것을 인식치 못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 수 있네: 낯선이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젊은 소크라테스

우리 안의 앎의 상태(πάθος, 277d7)는 현재 아주 불합리한 진행에 처한 것처럼 여겨지네: 낯선이

무슨?: 젊은 소크라테스

“오 친우여! 나에게는 **예 그 자체**가(τὸ παράδειγμα αὐτὸ, d9-10)다시 **예**를 필요로 하게 됐네: 낯선이

무슨? 저를 위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주십시요: 젊은 소크라테스

자네가 따를 준비가 돼 있으니 해야겠네. 막 철자(γραμμάτων, e3, 문자)들을 익혀 인식하게 될 때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아네(ἴσμεν, 277e3): 낯선이

어떠한?: 젊은 소크라테스

가장 짧고 쉬운 음절들 안의 요소들(τῶν στοιχείων, e6)을 충분하게 분간한다는 것, 그리고 저(요소)것들에 관한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낯선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소크라테스

그런데 알론한 (음절)들 안의 동일한 그 (요소)들과 이 (요소)들에 의심을 품어 그들은 다시 거짓 의견과 로고스를 [지니게] 되네: 낯선이

물론: 젊은 소크라테스

따라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로 그들을 가장 쉽고 매끈하게 이끄는 (길)은 이것이 아니겠나?: 낯선이

어떠한?: 젊은 소크라테스

먼저 올바른 의견을 지니는 (요소)들의 그 음절로 끌어다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음절)을 나란히 놓여지게 하여, [그것들을] 비교하면서(παραβάλλοντας, 278b1)[양자를] 연결함에 의해서(τοῖς συμπλοκαῖς, b2) 그 양자 안에 있는 그 동일한 같음과 자연(τὴν αὐτὴν ὁμοιότητα καὶ φύσιν, b1-2)을 분명하게 보여주게나. 의심스러운 모든 것 [대신]에 진실한 의견들이 보여져 놓여지게 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인식된 (요소)들은 예들(τὰ παραδείγματα, 278b4)된다네. 모든 음절 안의 모든 요소들 각 각이 한 편으로는 알론한 것들과 헤태론한 것으로서의 헤태론한 것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동일한 측면

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동일한 것이라고 불리워질 것일세: 낯선이

물론 물론: 젊은 소크라테스

이제 이것이 충분하게 파악됐는가? 예(例)는 때때로 끊겨지는(διεσπασμένῳ, 278c5)헤태론 것 안에 있는 동일한 것이 올바르게 의견화되고 그리고 그 양자에 함께하는 단일한 것으로서의 각 각에 관한 진실한 의견이 완전하게 모아질 때 발생한다는 것: 낯선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젊은 소크라테스(277b9-278c7)"

"우리 자신의 영혼이 모든 것들의 요소들에 관하여 이러한 것을 자연스레 겪는다면 놀라운가? 어떤 때는 진리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 안의 각기 것 하나 [하나]가 끌어 모아지지만 어떤 때는 헤태론한 것들 안의 (각기) 모든 것이 다시 흩어지며(φέρεται, 278d3), 그리고 어떻게든 다르게든 함께 섞어진 그것들의 올바른 의견을 지니는 반면 프라그마들의 길고 쉽지않는 음절들로 옮아가면(μετατιθέμενα, 278d4)그것 자체들을 다시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낯선이

전혀 놀랍지않습니다: 젊은 소크라테스(278c8-d7)"

"이제 이와 같다면, 나와 자네가 전체 예(ὅλου παραδείγατος, 287e6, 例)의 자연을 그 부분에 있어 작은 알론한 예 안에서 보아 알려(ἰδεῖν, e6)고 앞서 시도한 것은, 이 후에 더 작은 (동일한 에이도스)로부터 가장 큰 왕의 동일한 에이도스에로 적용하면서, 꿈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例)를 통하여 도시의 양육을 기교에 의해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낯선이

아주 올바르십니다: 젊은 소크라테스(278e4-e11)".

테아이테토스 편 번역

“우리는 그 (음절은 철자 모두라는)것을 매끈하게 견지할 수 없네. 똑같이 우리는 음절을 요소들이 아니라 그(요소)들로부터 떠오르는(γεγονὸς, 203e4, 발생하는), 그런데 그 요소들과는 *헤태론한, 자기 자신의 단일한 이데아를 지니는 어떤 에이도스 하나*(ἕν τι γεγονὸς εἶδος, ἰδέαν μίαν αὐτὸ αὑτοῦ ἔχον, e3-4)로 놓아 보아야 하네: 소크라테스

물론입니다. 아마 저것보다는 더 그러할 것 같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조사해야 하네. 그렇게 인간을 넘어선 방식으로(ἀνάνδρως, 203e8)[정립된] 크고 거룩한 그 로고스를 포기해서는 안되네: 소크라테스

안되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해 보세나. 각기 합쳐지는(συναρμοττ-όντων, 204a2)요소들로부터 떠오르는, **이와같이**(ὁμοίως, a2)문자들(γράμμασι, a3)과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들 각각 안에서도 (떠오르는), *단일한 이데아*가 음절이라고 [말일세]: 소크라테스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것의 부분(μέρη, 204a5)은 아니어야만 하네: 소크라테스

실로 무슨?: 테아이테토스

그것(οὗ, a7)의 부분이라면,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 *모두들*(τὰ πάντα, a7)이네. 또는 그 전체는 부분들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부분들과는 헤태론한 어떤 하나 에이도스라고 자네 말하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실로 *모두*와 *전체*(τὸ πᾶν καὶ τὸ ὅλον, 204a11)를 자네는 동일한 것 또는 각기 헤태론한 것 중 어느 것이라고 말할텐가?: 소크라테스

어느 것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대담하게 답하라고 당신이 다그치시니 저는 위험을 무릎쓰고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오 테아이테토스여! 대담함은 옳은 것이네. 자 그 대답이라면 조사해야 하네: 소크라테스

(조사) 해야 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전체*는 *모두*(τοῦ παντός, 204b7)와 차이나는가? 지금 로고스대로 하자면 [말일세]: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실로 무슨? *모두들*과 *모두*(τὰ πάντα καὶ τὸ πᾶν, b10, 모든 것과 모든 것들)는 차이나는가? 예를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셋의 두배

또는 둘의 세배 또는 넷과 둘 또는 셋과 둘과 하나 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 이러한 모두들을 동일한 것 또는 헤태론한 것 중 어느 것이라고 말할까?: 소크라테스.

동일한 것: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육 이외의 알론한 것?: 소크라테스?

(알론한) 어느 것도 아닙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각 각 표현(λέξεως, 204c6; 시., 1450b20, 1456a34)모두들을 우리는 육이라고 말하는가?: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모두들(τὰ πάντα, 204c8)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두(πᾶν, c8)[이외의] 어떤 것도 말하지 않지?: 소크라테스

필연적으로: 테아이테토스

육들(τὰ ἕξ, c10)과 알론한 어떤 것?: 소크라테스

어떤 것도 아닙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수로 이루어진 것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와 모두들 각 각(τό πᾶν καὶ τὰ ἅπαντα, 204d1-2)은 동일한 것이라고 불리워지는가? 소크라테스

(그렇게) 나타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것들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네. 플레트론(πλέθρου, d4, 길이 단위-약 100feet, 1/6 스타디온)수치와 플레트론은 동일하다고. 그렇지 않은가?: 소크라테스

예[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스타디온(τοῦ σταδίου, 204d7, 약600feet-6플레트론-100 ὀργυιαί-1/8 roman mile)의(수치 경우에)도 그와 같네: 소크라테스

예

그리고 다시 군대의 [병졸] 수와 군대도, 그리고 이와같은 모두들도? 왜냐하면 수 모두는 그것들 모두 각 각 있는 것(τὸ ὄν, d11; 논자1, 1372)이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각기 것들의 수는 확실히 부분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인가?: 소크라테스

(알론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분들로 이루어졌겠지요?: 소크라테스

나타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부분 모두들은 모두라는 것에 동의되네. 모두 수는 모두이므로: 소크라테스

그렇게: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전체는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네. 왜냐하면 모두는 모두들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부분이 전체 이외의 알론한 것의 부분일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

모두의(부분일 수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오 테아이테토스여! 용감하게 싸웠도다. 그런데 모두는 어떤 것도 빠트려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그것 모두이지?: 소크라테스

필연적으로: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전체는 결코 어떤 것도 빠트려지지 않을 이것과 동일하지 않는가? 반면에 빠트려지는(ἀποστατῇ, 205d5)것은 전체도 모두도 아닐세. [이 양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발생하겠지?: 소크라테스

지금 저에게는 모두와 전체는 어떤 차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전체의 부분과 모두의 부분은 모두들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소크라테스

물론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다시 방금 전의 욧점으로 돌아가 보세. 만약 음절이 요소들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요소들을 자신의 부분으로 지니지 않아야 하든지, 또는 그 (요소)들과 동일하다면 저 (요소)들과 같이 인식될 수 있든지, 해야하지 않겠나?: 소크라테스

그렇게: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음절)은 그 (요소)들과 헤태론해야 되지?: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만약 음절의 요소들이 (음절의) 부분이 아니라면, 음절의 부분인 그렇지만 [그 요소(철자)들과는] 알론한 어떤 것이 저(음절)의 요소이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 소크라테스여! 만약 저(음절)의 어떤(ἄττ', 205b11)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 요소들을 제쳐두고 알론한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비웃음을 살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물론 물론, 오 테아이테토스여! 지금 로고스에 따르면 음절은 부분이 없는 단일한 어떤 이데아일세: 소크라테스

(그럴 것처럼) 여겨집니다(ἔοικεν, 205c3): 테아이테토스

오 친애하는! 만족스럽게 여겨졌던 잠시 전에 말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자네 기억하는가? 알론한 것들이 그것들로부터 합쳐지는 그 첫 번째 것들의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첫 번째) 것 각 각은 그 자체로 합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그리고 (첫 번째) 그것에 관해서는 '있다'(τὸ εἶναι, 205c7)를 올바르게 덧붙혀져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알론한 것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으로서의 이것(τοῦτο, c8)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로 이것이 그(첫 번째) 것을 비로고스적이며 비인식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 소크라테스

기억합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 그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이 그(음절)이 단일한 에이도스(τοῦ μονοειδές, 205d1)이며 비부분적이라는 것의 원인인가? 나는 알론한 (원인)을 볼 수 없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알론한 원인이) 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음절은 저(첫 번째)것과 동일한 에이도스에 해당되는가(ἐμπέπτωκεν, 205d4)?부분을 지니지 않으며 단일한 이데아라면 [말일세]: 소피스테스

물론 물론: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만약 여러 요소들이 음절이고 그리고 (음절은) 전체인 어떤 것이며, 그것의 부분들은 동일한 것들이라면, 그 요소들도 음절과 같이(ὁμοίως, 205d8) 인식되며 설명(ῥηταί, d9, 수식)될 것이네. 모두들 부분이 그 전체와 동일하다고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 소크라테스

훨씬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만약 (음절이) 하나이고 비부분적이라면, 음절과 같이 그렇게 요소는 비로고스적이며 비인식적일 것일세. 동일한 원인이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되네. 음절은 인식적이고 설명되는 것이지만 요소는 그 반대일 것이라는 것: 소크라테스

안됩니다. 로고스에 의해서 설득됐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다시 무슨? 따라서 문자들을 배울 때(ἐν τῇ τῶν γραμμάτων μαθήσει, 206a2)자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인정하도록 하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어떠한?: 테아이테토스

배울 때 그 요소들을 보고 들음에 의해서 그것 각 각을 그 자체로 구분하려는 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말하고 쓰는 순서(ἡ θέσις, 206b7; 논자1, 187)의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말일세]: 소크라테스

가장 진실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음악에서 최상의 성취는 구분된 여러 음(τῷ φθογγῳ, 206b1)들이 [현악기의] 어느 줄에 속하는가를 말하는 능력에 엄밀히 놓여있네.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구분된 음들이 음악의 요소들이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구분된 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요소들과 음절들들에 관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만약 알론한 것들을 판단하려 한다면 요소들의 류는 음절들(τῆς συλλαβῆς, 206b8, 복합적인 것)의 인식(τὴν γνῶσιν, 206d7)보다도 더 선명하며 그리고 더 완전하게 각 각을 배우게 하는 인식을 산출한다네. 만약 어떤 자가 음절은 자연스레 더 인식적인 반면 요소는 자연스레 덜 인식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은 어린아이 놀이라고 상정할 것이네: 소크라테스

정확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203e4-206b12)"

"그러나 내가 여기기에는 실로 이것(τούτου, 206c1)에 관한 알론한 논증이 선명해져야 할 것처럼 보이네. 우리 앞에 놓인 그것(δι' αὐτὰ, c3)을 잊어서는 안되네. 실로 언제 진실한 의견에 로고스가 더해져 가장 완성된 앎이 생겨나느냐가 말해지는 것: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실로 닥아서 보세. 우리에게 어느 한 때 건네져오는(ποτε βούλεται, 206c7, 언제)그 로고스가 가리키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는 세 가지 중의 하나를 (로고스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네: 소크라테스

어떠한 것들의?: 테아이테토스

이름과 술어들을 지닌(μετὰ ῥημάτων τε καὶ ὀνοματων, 206d2)소리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διάνοιαν, d1)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것일 것이네. 거울이나 물 안으로처럼 입을 통한 흐름 안으로 그 의견을 새겨넣으면서(ἐκτυπούμενον, d3)[말일세] 자네는 로고스(λόγος, d5, 말)가 이러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여겨집니다. 말하는 것(λέγειν, 206d6)은 최소한도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아닌 모든 자는 각기 것에 관해 스스로의해 여겨진 그 무엇을 표시(ἐνδείξασθαι, 206d8)하는 이것을 다 소간에 행할 수 있네. 그리고 옳은 의견을 지니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로고스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 걸세. 그렇지만 여전히 앎과 분리된 옳은 의견이 결코 생겨나지는 않을걸세: 소크라테스

진실: 테아이테토스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 보여준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고소하지는 말게. 똑 같이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물음에 요소들을 통해서 답하러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소크라테스

예를들어(οἷον, 207a1)무엇인가를 말해주십시요. 오 소크라테스여!

예를들어 헤시오도스는 마차에 관해서 '그런데 마차의 수많은 통나무 조각들'이라고 말하네. 나는 (그 조각들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자네도 할 수 없다고 보네. 그러나 만약 마차는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바퀴, 축, 모통, 난간(ἀντυγες, 欄干), 멍에라고 말할 것이네: 소크라테스

물론: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자네 이름을 물어 오는데 그 음절로 대답하는 경우와 똑 같이 우리를 그는 비웃을 것이네. 말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의견을 지니며 말하지만 [스스로를] 문법가로 여기면서 문법가처럼 이름 데아이테토스의 로고스를 말하며 지닐 것이기 때문이네. 진실한 의견에 요소들 각기 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앎이지 않다라고 (그는) 말할 것이네. 앞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 소크라테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그렇게 마차에 관한 올바른 의견을 우리는 지닌다 라고 [그는] 말할 것이지만, 저(마차)의 수 많은 [부분들]을 두루 말함을 통해서 그(마차)의 우사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서 진실한 의견에 로고스를 덧붙히며 그리고 의견을 형성하는 것 대신에(ἀντὶ, 207c2) 그 마차의 우시아에 관한 기교적인 앎을 생겨나게 한다네. 요소들을 통해서 그 전체로 감(περάναντα, c4)에 의해서: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당신께 좋게(ἓυ, c5)여겨지십니까? 오, 소크라테스시여: 테아이테토스

오 친우여! 각기 것에 관하여 요소들을 두루 통해 가는 길은 로고스이지만 음절 또는 더 큰 것을 (통해 두루 가는 길은) 비로고스라는 것을 자네 인정하는지의 여부-인정할 것처럼 여겨지네만- 그것을 나에게 말해 주게. 그것

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이네: 소크라테스

그러나 물론 인정됩니다: 테아이테토스

동일한 것이 어떤 때는 동일한 것의 의견과 관련하여(δοκῇ αὐτῳ, 207d4)동일한 것의 [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헤태론한 것의 [부분]일 때, 또는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의) 의견과 관련하여(δοξάζῃ, d6) 어떤 때는 동일한 것의 [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다른] 헤태론한 것이 (동일한 그것의 [부분]일 때, 어느 때든지 앎을 지닌다고 보는가?: 소크라테스

제우스에 맹세코 내가 [보기엔] (지니지) 않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자네 자신과 알론한 자들이 처음에 문자들을(τῶν γραμμάτων, 207d8)배울 때를 잊었는가?: 소크라테스

동일한 음절이 어느 한 때는 헤태론한 문자(γράμμα, 207e1, 철자, 綴字)에, 어느 한 때는 [다른] 헤태론한 문자에 이끌린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문자)가 어느 한 때는 그 음절에 덧붙혀지지만 어느 한 때는 다른 음절에 놓여진다는 것은 당신은 말하십니까?: 테아이테토스

그것을 내가 말하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저는 제우스에 맹세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들인한 어는 것도 어떻게든 앎으로 이끌지지 않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무엇이? 그러한 때에 테아이테토스(Θεαίτητον, 207e7)를 쓰면서 어떤 자가 테애파(θῆτα, θ, e8)를 쓸적에 만약 써야 한다고 여기면서 쓴다면, 그리고 다시 테오도로스(Θωόδωρον, 208a1)를 쓰면서 타우(ταῦ, τ, α1)를 쓰려 할 적에 마찬가지로 만약 써야 한다고 여기면서 쓴다면, 자네 이름의 첫 번째 음절 그것이 알려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

그러한 상태는 아무 것도 보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 동의할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두번째 음절과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관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막을 어떤 것이 있는가? 소크라테스

어떤 것도 없습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연이어 쓸 적에 (그는) 옳은 의견과 함께 요소를 두루 통하여 '테아이테토스'를 쓰지?: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올바른 의견을 지니지만, 앎은 아니지?: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올바른 의견과 더불어(μετὰ, 208b4)로고스는 지니네. 요소들을 두루 통해 가는 길에 [의해] 썼던 것(τὴν γὰρ διὰ τοῦ στοιχείου ἔχων ἔγραφεν, b4-5)이 로

고스였다는 데에 우리는 동의하네: 소크라테스

진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오 친구여! 그러한 로고스와 더불은 옳은 의견은 어디에서도 앎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네: 소크라테스

감히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가장 진실한 앎의 로고스를 우리가 지닌다고 상상했던 것은 실로 부풀은 꿈이었던 것처럼 여겨지네. 또는 어디에도 없다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κατηγορῶμεν, 208b12)하는가? 똑 같이 이것은 그(앎)을 정의(ὁριεῖται, 208c1)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네. 그러나 세 가지 에이도스 중에 앎을 로고스를 지닌 옳은 의견이라고 **정의**하는 가운데(ὁριζόμενον, c3) 우리가 말했던 로고스가 놓여지는 어떤 하나가 남았네: 소크라테스

옳게 기억납니다. 남아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상(εἴδωλον, 208a5, 映像)과 같은 소리 안의 디아노이아가 (그 하나) 였고, 요소들을 두루 통하여 그 전체에 도달하는 길이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로 당신은 세 번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시렵니까?: 테아이토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각기 것들이 차이나게 되냐고 (그것이) 물어졌던 그 어떤 기호(τι σημειον, 208c7)를 말하는 것일세: 소크라테스

어떤 것의 그러한 로고스의 **예**(**οἷον**, 208c9)를 저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테아이토스

원한다면, 해를 **예**(**οἷνο**, 208d1)로 취해 보세. 땅 주위를 도는(ἰόντων, d3) 하늘의 가장 밝은 몸들로서의 그(해)의 로고스에 자네는 만족할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하네: 소크라테스

물론: 테아이테토스

실로 (그 예를) 말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게나.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따라서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각기 것의 그 차이(τῆν διαφορὰν, 208d6)를 취함으로서,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고스를 얻을 것이네. 반면에 어떤 것의 공통점(κοινοῦ τινος, 208d8)을 고정시킨다면, 저 공통일 것들의 그 로고스가 자네에게 저것들과 관련하여 있을 것일세: 소크라테스

이해했습니다. 그와같은 것이라고 불리워진 로고스를 나는 매끈하게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런데 옳은 의견과 함께 알론하게 있는 것들의 차이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취한다면, 먼저 번에는 의견이었던 것의 앎이 생겨날 걸세: 소크라테

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실로, 오 테아이테토스여, 물론 물론 나는, 그림자그리기(σικαγραφήματος, 208e8)와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바라 본다네. 조금도 이해(συνίημι, e8)하지 못하면서 (말이네). 비록 내가 거리를 유지하는한 나에게 무엇이 말해지는 듯해도 말일세: 소크라테스

어떻게 무엇[때문에] 그러합니까?: 테아이테토스

가능한한 이야기해 보려네. 자네에 관해 옳은 의견을 지니는 내가 만약 자네의 로고스를 덧붙힌다면 자네를 인식하는거지만 만약 (덧 붙히지) 못한다면 단지 의견 만(을 지닐거네):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토스

그런데 로고스는 자네 차이를 [말로] 전달하는 것(ἑρμηνεία, 209a5)이었네: 소크라테스

그렇게: 테아이테토스

그래서 단지 의견 만을 지닐 때, 알론한 것들과 그것에 의해서 차이나는 어떤 알론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디아노이아에 의해서는 포착되질 않네: 소크라테스

안될 것처럼 보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알론한 어떤 자들이 지니는 것 보다 더 많이 자네가 그 어떤 것도 지니지 않는[그 만큼 지니는] 공통적인 어떤 것을 디아노이아에 의해 포착했어야 하네(διενοούμην, 209a10): 소크라테스

필연: 테아이테토스

제우스에 맹세하고 말해주게. 어떻게 나는 그러한 것에 있어 알론한 자보다는 자네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지녔겠는가? 테아이테토스를 있는 그대로 우리 생각(διανοούμενον, 209b3)하고 있다고 해 보세. [그는] 사람이고 코와 눈과 입과 그리고 그렇게 실로 그러한 것들 각 각 하나이네. 데오도로스 또는 아주 먼 저만큼의(τὸ ἔσχατον, b7) 뮤즈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테아이테토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디아노이아일세: 소크라테스

무슨?: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실로 단지 코와 눈 뿐만이 아니라 들어간 코(σιμόν, 209c1; 논자1, 317; 논자4, 135)와 나온 눈을 지닌 사람에 관해 생각한다면 다시 내 자신 또는 그러한 다른 자들 보다는 오히려 다시 자네 의견을 지니지 않는가?: 소크라테스

(제 의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지니지) 않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안에는 테아이테토스의 의견이 먼저 있지는 않

네. 그의 들어감(ἡ σωτης αὖτη, 209c5, 푹꺼짐)[과] 내가 보았던 알론한 자들-만약 자네라면 자네가 그것들과 그렇게 알론한 바로 그 알론한 것들이-의 들어감과의 어떤 차이(διάφορόν τι, 209c6)가 찍혀 내 안에(πατ′, c6)기억(μνημε-ῖον, c6)남기 전까지는 말일세. 그래서 만약 내가 자네를 내일 만난다면 기억이 되살아나서(ἀναμνήσει, c8)자네에 관한 옳은 의견을 지니게 할 것이네: 소크라테스

가장 진실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옳은 의견은 각기 것과도 관계하고 차이남(τὴν διαφορότητα, 209d1)과도 관계할 것이네: 소크라테스

선명해집니다: 테아이테토스

옳은 의견에 로고스를 덧 붙히는 것에는 나아가서 무슨[일이 일어날까]? 만약 어떤 것을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것을 의견에 덧붙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덧 붙히라는] 그러한 명령(ἡ ἐπίταξις, 209d6)은 전적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네: 소크라테스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 [길]것들의(ὧν, d8) 옳은 의견을 우리가 지닐 때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 [길]것들의 우리의 옳은 의견들을 덧붙히도록(κελεύει, 209d9)다그칠 것이네. 그러나 그렇게 참모와 로울러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의 굴러돌아감(περιτροπὴ, 209e1)이 그러한 명령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네[명령을 수행할 어떤 것도 없다?]. 오히려[그 명령들은] 장님의 방어(παρακέλευσις, e2)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니는 의견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니는 그것들을 스스로 다그쳐 취하려하기 때문일세. 그러한 명령은 전적으로 비웃음을 살 것처럼 보이네: 소크라테스

반면에, 만약 ---- ? 당신에 방금 한 가정은 당신은 어떤 대안을 진술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테아이테토스[콘퍼드 번역].

오 어린이여! 만약 로고스를 덧붙히는 것이 차이남에 관한(τὴν διαφορότη-τα, 209d7) 의견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차이남)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앎에 관한(περὶ, d8) 이러한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로고스는 즐거운 일일 것이네. 인식한다는 것(τὸ γνῶναι, 209e6)은 어디에서든 앎(ἐπιστήμην, 210a1)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네. 그렇지않은가?: 소크라테스

예: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앎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것에는 차이남에 관한 앎을 지닌 옳은 의견이라고 답하여질 것처럼 여겨지네. 왜냐하면 저것에 따르면 로고스를 덧붙힘은 이것이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그럴 것처럼 여겨집니다(ἔοικεν, 210a6):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물론 물론, 우리가 앎(은 무엇인가)을 조사할 때에 차이남의 (앎)이든 어떤 [알론한] 것의 (앎)이든 앎을 지닌 옳은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네(εὐήθες, 210a6). 따라서 오 테아이테토스여! 감각도 진실한 의견도 진실한 의견과 함께하는 로고스도 앎이 될 수는 없을 것일세: 소크라테스

아닐 것처럼 여겨집니다: 테아이테토스

오 친구여! 우리는 앎에 관하여 아이 출산하는 고통을 지닌 작업 도중에 있는가? 아니면 (그 앎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산출했는가?: 소크라테스

예 제우스에 맹세코 저는 내 자신 안에 지니는 것들 보다 더 많이 당신을 통해 말해졌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산파술(ἡ μαιευτικὴ τέχνη, 210b8)이 우리에게 갖다 준 이 모든 것들은 공허하며 영양가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가?: 소크라테스

물론 물론[찾고 있는 앎의 정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아이테토스(206c1-210b10)"

소피스테애스 번역

“그렇다면 우리 이제 잠시 전에 종들과 철자들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름들에 관해(τῶν ὀνομάτων, 261d1)조사해 보기로 하세. 왜냐하면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현재 조사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일세: 낯선이

이름들에 관해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테아이테토스

이름들 모두가 서로 묶여지는지(συγαρμόττει, 261d5) 또는 그 이름들 중 어느 것도 서로 묶여지지 않는지 또는 어떤 것은 묶어지는 반면 어떤 것은 묶어지지 않은지?: 낯선이

분명히 마지막 것입니다. 곧 어떤 이름은 묶어지는 반면 어떤 이름들은 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질서있게 말하여져서 명백해지는 것들이 묶여지는 것인 반면 자신들이 연이어져 있어도 *가리키지 않는 것*(μηδὲν σημαίωντα, 261e2)들은 묶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자네는 아마 말하고 있을 것이네: 낯선이

어떻게 그렇지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테아이테토스

자네가 동의했을 때 자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내가 가정했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시아에 관한 소리(τὴν φωνῆ, 261e6)의 두 가지 류의 명백해진(δηλωμάτων, e6) 것을 지니기 때문일세: 낯선이

어떻게?: 테아이테토스

하나는 **오노마**(τὰ ὀνοματα, 262a1, 이름)들이라고 다른 하나는 **레애마**(τὰ ῥηματα, a1, 말하여진 것들, 속성들, 술어들, 동사들)들이라고 불리워지네: 낯선이

이것들 각자에 대해 말해 보십시요: 테아이테토스

행위와 연관되어 분명해진 것(τὸ ἐπὶ τὰς πράξεσιν ὂν δήλωμα, 262a4)을 우리는 레애마라고 부르네: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문제의 그 행위들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진 소리신호(σημε-ῖον τῆς δωνῆς, 262a6)를 이름이라 부르네: 낯선이

정확하십니다: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로고스**는 연이어 말하여지는 오노마들만으로는 결코 복합되지않는 또 레애마와 오노마가 분리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네: 낯선이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자네가 방금 동의했을 때 자네가 분명히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

었다고 나는 보네. 왜냐하면 오노마들과 레애마들이 만약 다음과 같은 길에서 연이어져 말해진다면 로고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말해기 원했기 때문일세: 낯선이

어떻게?

예를들어 행위를 가리키는 바로 걷는다 달린다 잠들다 그리고 이와같은 다른 행위들을 가리키는(σημαίει, 262b6) 레애마들은 심지어 발설됐을지라도 그것들 모두 로고스를 만들지는 못한다네: 낯선이

물론 만들지 못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다시 이런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들의 예를들어 사자 숫사슴 말 그리고 다른 모든 그 오노마들이 발설될 때 그것들의 측면에서 연이어짐은 아직 로고스를 만들지 못한다네. 왜냐하면 래애마들가 오노마들와 섞어지기(κετάσῃ, 262c2)전까지는 어느 경우에도 발설된 그 오노마들은 있는 또는 있지 않는 어떤 것의 행위들 비행위들(ἀπραξίαν, c4) 우시아들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일세. 그런데 섞어진(ἥρμοσέ, c4)직후 저 첫 연결(πρώτη συμπλοκή, c5)이 **로고스**일세. 이 로고스가 로고스들의 첫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일세: 낯선이

당신은 이것에 의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테아이테토스

사람은 배운다 라고 누가 말했을 때 이것들중 극단적인 것이(ἐλάχιστόν, 262c8) 첫 로고스이다는 것에 자네는 동의하시는가?: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사람은 배운다(μανθάνει, 262c8)라고 어떤 자가 말할 때, 배우는 것들 중 가장 적은 첫 번째 것이 로고스라는 것에 자네는 동의하는가? - 예 - 사람은 배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있는 것들 또는 되는 것들 또는 됐던 것들 또는 있을 것들에 관해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는 단지 오노마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레애마와 오노마를 연결하여(συμπλέκων, d4)그 결과에 이른다는 것은 분명하네. 이것이 왜 우리들이 그는 단지 오노마(이름)을 제공하는(ὀνομ-άζειν, c5)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다(λεγειν, c5)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일세. 그리고 실로 우리들은 엮어진 이것에(τῷ πλέγματι τουτω, d9) 로고스라는 오노마(τὸ ὄνομα, 262d6)를 주네(262c8-d6): 낯선이

옳습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이것들중 어떤 것은 서로 들어 맞는(ἥρμοττε, 262d7)반면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것과 똑 같이 역시 어떤 소리의 기호들은(τὰ τῆς φωνῆς σημεῖα, d9)들어맞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맞아 로고스를 이루네: 낯선이

물론 물론: 테아이테토스

나아가서 사소한 이런 것들: 낯선이

그러한 것은?: 테아이테토스

로고스가 로고스이기 위해서는 그 로고스가 반드시 어떤 것의(τινὸς,262e7) 로고스여야만 하네. 어떤 것이 없이는 로고스가 불 가능하네: 낯선이

그렇게: 테아이테토스

어떤 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떤 질(ποιόν, 262e9)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낯선이

어찌 않으리오: 테아이테토스

이제 우리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나: 낯선이

그래야만 합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렇다면 오노마와 레애마에 의해서 **사물**(πρᾶγμα, 262e13)을 행위에 함께 놓으면서(συνθεὶς, e13)나는 자네에게 로고스를 말할(λἐξω, e12)것이네. 이제 그 로고스가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의 로고스인가를 자네는 나에게 말씀하시게: 낯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아이테토스

테아이테토스는 앉다 이것은 긴 로고스인가 아닌가?: 낯선이

아닙니다. 그 로고스는 짧습니다: 테아이테토스

이제 이 로고스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인지를 자네는 나에게 말해야 하네: 낯선이

분명히 그 로고스는 나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그 로고스는 나의 로고스입니다: 테아이테토스

다시 요것은 무엇?: 낯선이

어떠한?: 테아이테토스

내가 지금 그와 대화하는 그 테아이테토스는 날다: 낯선이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는 나에 관한(περὶ ἐμουI 263e10)것이며 그리고 그 로고스는 나의 로고스임을 누구든 동의할 것입니다: 테아이테토스

그러나 우리들은 각 로고스가 반드시 어떤 질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네: 낯선이

예: 테아이테토스

이런 각 로고스에 어떤 질이 덧 붙혀져야 할까?: 낯선이

하나는 거짓이며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 테아이테토스

이것들중 진실한 것은 당신에 관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하네: 낯선이

확실합니다: 테아이테토스(262d1-263b7)"

텔레스의 시학 시그마 편 20 장

“(20)모든 **언어**(λέξις, 1456b20; 논문3, 14쪽)각 각의 부분들은 이것이다. 요소(철자), 음절, 관사(σύνδεσμος, b21), 오노마(이름), 레애마(동사), 연결사(ἄρθρον, b21), 어미변화(πτῶσις, 1456b21), 로고스.

요소는 나뉘어질 수 없는 **소리**(φωνὴ, b22)이지만, 모든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자연스레 그것으로부터 합해지는 그런 것들이다. 짐승들의 나뉘질 수 없는 소리들은 어느 것도 요소가 아니라고 나는 말하기 때문이다. 그(소리)의 부분은 소리(τὸ φωνῆεν, 1456b25, 모음)와 반소리(ἡμίφωνον, b25, 半모음)과 비소리(ἄφωνον, b25)이다. 소리(모음)는 [어떤 것과 함께] 놓여지지 않고도 들리는 소리이다. 예를들어 알파(A)와 오메가(Ω)처럼. 그렇지만 반소리는 [어떤 것과 함께] 놓여진 후에야 들리는 소리이다. 예를들어 시그마(Σ)와 로오(P)처럼. 그런데 비소리는 [함께] 놓여진 후에도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소리가 아니지만 어떤 소리를 지닌 후에야 들려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감마(Γ)와 델타(Δ)처럼. 이 (소리의 요소)들은 입의 모양(σχήμασί, 1456b32)과 자리(τόποις, b32) 그리고 호흡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길고 짧음 나아가서 날카로움(ὀξύτητι, b33, 에큐트)과 강세(그라브)와 그 중간(서 컴플렉스)에 의해서 차이난다. 이것들 각 각에 관해서는 *음운*(*μετρικοῖς*, b34)학에 속한다.

음절은 소리(모음)와 비소리(묵음)로 합쳐진 비기호적인(ἄσημος, 1456b35, non-significant)소리이다. A없는 ΓP도 예를들어 A와 함께하는 ΓPA처럼 음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에 관한 이론은 *음운학*과는 차이난다.

연결사 ..... 비기호적인 소리 .....

관사 ..... 비기호적인 소리 .....

이름은 <u>시간</u> 없는 의미(σημαντικόν, 1457a12, 기호)를 지닌 합쳐진 소리이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떤 것도 자체로 의미없다[기호가 아니다]. [그 부분들이] 겹쳐진 것들에 있어서, 그 (부분) 자체가 의미를 지닌(σημαῖον, a13, 기호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테오도로스에 있어서의 도로스(τὸ δῶρον, a13)는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οὐ σημαίνει, a14, 가리키지 않는다-지시하지않는다)

레애마는 <u>시간</u>을 지닌 의미의 합쳐지 소리이다. 이(레애마)의 부분은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이름들의 경우에서 처럼 말이다. 사람 또는 흼은 어느 때(πότε, 1457a16-17)를 가리키지 않는(οὐ σημαίνει, a16) 반면 걷다 또는 걸었다는 한편으로는 현재시간을 한편으로는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기(προσσημαίει[3], a17)때문이다.

어미변화는 오노마와 레애마의 (어미변화)이다. 이것의 또는 이것에 그리고 이와같은 것들의 의미를 지니며(σψμαίνουσα, 1457a19-20, 가리키며], 예를들어 사람들과 사람에서처럼 하나 또는 여럿을 (가리키고), 예를들어 물음과 명령에서처럼 발설의 양상(κατὰ τὰ ὑποκριτικά, a21)(을 가리킨다, 의 의미를 지닌다). 걸었어[?] 또는 걸어라[!]는 이런 측면에서 레애마의 발설 양상의 에이도스(종)이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자신의 어느 부분도 그 자체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σημαίνει, 1047a24)합쳐진 가리켜진 소리(φωνὴ συνθετὴ σημαιντική, a23-24)이다. 모든 로고스 각 각(ἅπας, a25)이, 예를들어 사람의 정의(ὁρισμός, a26)에서처럼, 이름들과 레애마들의 함께 놓임(σύγκειται, a25)이 아니라, 레애마들 없이도 로고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로고스의) 부분은 항상 어떤 것을 가리킨다[어떤 의미를 지닌다]. 예를들어 클레오온이 걷는다에서의 클레오온처럼. 그런데 로고스는 두 가지 길에서 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를 가리키거나 또는 여럿으로부터 연결(συνδέσμων, a29)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여럿의) 연결에 의해 하나인 일리아드이지만 하나를 가리킴에 의한 사람의 로고스처럼(1456b20-1457a30).

(21)이름의 에이도스(종)은 한편으로 순수한-나는 의미있는 것들로(ἐκ σημ-αινόντων, 1457a32, 의미 있는 부분들로)함께 놓여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땅(γῆ, a32)처럼-(이름), 한 편으로 겹쳐진 (이름)이다. 이(겹쳐진 이름)은 한 편으로 가리키는 것(의미있는 것)과 기호아닌 것으로부터(ἐκ δημαίν-οντος καὶ ἀσήμου, a33, 가리키는 것과 가리키지않는 것으로부터, 기호인 것과 기호 아닌 것으로부터)(함께 놓여진 이름)이며, 한 편으로 가리키는 것들로 함께 놓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세 겹과 네 겹과 여러 겹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메갈리오오톤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헤르모카이코크산도스처럼. 모든 이름 각 각은 일상어 또는 외래어 또는 비유어 또는 수식어 또는 신조어 또는 설명어 또는 축약어 또는 기타 변형어이다(논문3, 15).

그런데 일상어(κύριον, 1457b3) .....

---

3) 'προσσημαίνει(의미를 덧붙히다, 더하여가리키다)'라는 표현은 해석에 관하여(19b20-21)에서 "ἔστι δίκαιος ἄνθρωπος'의 "ἔστι'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핵심단어로 나타난다(논자4, 66; 논자1, 862; 논문1, 47)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 알파 10장 327b10-328b22

나무(τὴν ὕλην, 327b10, 질료)가 불에 섞였다고도, 타오르면서 그 (나무)가 자신의 부분들에도, 불에도, 타오르면서 섞인다고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은 생성 소멸된다(고 말한다). 동일한 길에서, 우리는 음식이 몸과도, 모양이(τὸ σχῆμα, b14)이 덩어리로 찍히면서 그 밀랍과도, 섞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몸은 흼과도,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속성과 성향이 사물들과도, 섞여지지(μίγνυσθαι, b16)않는다. 유지되는 것들이(σωζόμενα, b17)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흼과 앎도 섞여질 수 없고, 분리되지 않는(τῶν μὴ χωριστῶν, b19)알론한 것들 어느 것도 (섞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은 언제든지 같으며 섞여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매끈하지 않다(οὐ καλῶς, b19). 모든 것 각 각이 모든 것 각 각과 섞여질 수는 없기때문이다. 섞여지는 것들 각 각은 분리해 있어야 하는데, 속성들 중 어느 것도 분리적일 수 없다.

그런데 있는 것들중 어떤 것들은 잠재적으로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활동적으로 있으므로, 섞여지는 것들은 있고 어떻게든 그리고 있지 않다. 생성된 것 각 각은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생성된) 그것들과는 에네르게이아적으로 헤태론하지만, 섞어지기 전까지는 그것들 각 각은 뒤나뮈스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흩어지지(ἀπολωλότα, 327b6) 않는 것들이다. 이것은 보다 앞선 로고스에서 나타났던 어려움이었다. 섞어지는 것들은 보다 앞선 분리됐던 것들로부터 합해진 것들이며(συνιόντα, b28)그리고 다시 잠재적으로 분리된 것들이다. 그래서 몸과 흼처럼 활동적으로 머무르지도, 파괴되지도, 헤태론하게도(몸으로도, 힘으로도), 이 양자적으로도, 않는다. 그(섞어지는) 것들의 뒤나뮈스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어려움)것들이 무시된다. 그런데 그것들과 연속된 어려움, [곧] 섞어짐이 감각에 대한 무엇인지의 여부는 세분화되야한다.

섞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적은 것들로 나뉘어질 때, 그리고 그와 동일한 길에서 서로 나란히 놓여져(τεθῇ, 327b35) 감각에 의해서는 각 각 분명해지지 않을 때, 섞여졌는가? (섞여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따라서 섞어지는 것들의 부분이 나란히(παρ', 328a1)있는가? 이제 한 편으로는 저것이라고, 예를들어 [밀의] 낱 알이 나란히 놓일 때 밀이 낱알들과 섞여진다고 말해지는 반면, 한 편으로 모든 몸이 나뉘어지는 것이라면, 몸은 몸[의] 작은 [부분]과 같은 부분(ὁμοιομερές, a4)이므로,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나란히 되야할 것이다.

그런데 (몸은) 가장 작은 (부분)으로는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 배열과 섞임은(σύνθεσις καὶ μίξις, 328a6)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하다. 섞어지는 것(τὰ μιγνύμενα, a7-8) 어떤 것도 적음의 측면에서 유지되는한 섞어지는 것은 아니

라고 우리는 말해야한다. 배열은 합쳐짐(κρâσις, 328a8-9)도 섞어짐도 아니며, 그 어떤 부분도 전체와 동일한 로고스(비율)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섞어져야 하는한 섞어진 것은(τὸ μιχθὲν, a10)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물의 부분은 물인 것처럼 합쳐진 것의(τοῦ κραθέντος, a12)(부분도) 그렇다. 그런데 섞어짐이 적은 것(부분들의) 배열(κατὰ μικρὰ σύνθεσις, a12)이라면. 이것들중 어떤 것도 일어나지(συμβήσεται, 328a13)않을 것이나, 그러나 단지 섞어지는 것만이 감각에 대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그것과(τὸ αὐτὸ τῳ, a14)섞어진다. 만약 예리하게 보지 않는다면, 륑케이에게는 섞어지는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섞어지는 어떤 것들도] 부분 나란히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섞어짐이 있지 않거나 또는 이것이 어떻게든 다시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실로, 우리들이 말했던 것처럼, 있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행하는(ποιητικά, a18-19)것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행하는) 이것들에의해서 겪는(παθητικά, a19)것들이다. 이제 한편으로 자신들의 질료(ὕλη, 328a20)가 동일한 것들은 짝(ἀντιστρέφει, a19; 논자1, 189, 979, 1010쪽, 상호적이다)인, [곧] 서로 행하는 것들이고 서로에 의해서 겪는 것들인 반면, 한편으로 자신들의 질료가 동일하지 않는 것들은 겪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한편으로 이것들의 섞어짐은 있지 않는, 때문에 치료술도 건강도 몸들과 섞어짐에 의해서 건강을 생산하지 못하는 반면, 한편으로 행하는 그리고 겪는 것들은 무엇이든지(ὅσα, a24)잘 나뉘는 것들이다. 많은 것들이 몇몇(ὀλίγοις, a24)들과 그리고 큰 것들이 작은 것들과 병열되는 것들(συντιθέμενα, a25)은 섞어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세한(κρατοῦντος , a26)것들의 증가를 생산한다. 왜냐하면 헤태론한 것이 그 우세한 것으로 변하기(μεταβάλλει, a28)때문이다. 예를들어 포도주 몇 방울이 많은 물에 부어지는 것이 섞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 에이도스가 풀어져(λύεται, a2 7)모든 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의 힘들이 어떻게든 똑 같아질 때 마다 한 편으로 각기 것은 그 자신의 자연으로부터 그 우세한 것으로 변하지만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에) 공통인 사이의 것(μεταξὺ, 328a31)(으로 된다). 이제 반대(ἐναντίωσιν, a32)를 지니는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섞어지는 것들(μικτὰ, a31)이라는 것은 선명하다. 왜냐하면 실로 이것들이 서로에 의해서 겪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은 것들이 적은 것들에 병열되면 더 섞어진다. 쉽고 빠르게 서로 풀어지게 하기때문이다. 많은 것은 이것을 여러 시간에 행한다. 때문에 나뉘어지고 그리고 겪는 것들 중 잘 한계지워지는 것들[τὰ εὐοριστα, 328a35-329 b1, 그 모양이 쉽게 바뀌는 것, 그 테두리가 쉽게 변하는 것, 가소성(可塑性)

이 좋은 것]이 섞이는 것들(μικτὰ, 328b1)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쉽게 적은 것들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 한계지워지는 것에 있음이었으므로 [그렇다]. 예를들어 몸들중에서 축축한(τὰ ὑγρὰ, b3)작은 것들이 가장 잘(섞이는 것들이다). 나뉘는 것들 중에서 축축한 것이, 끈끈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잘 한계지워지기 때문이다. 실로 이(끈끈하고 축축한) 것들은 단지 많고 크게 덩어리지우으므로 [그렇다]. 헤태론한 것을 단지 격렬하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소 조금, 겪을 때, 섞인 어떤 것도 그 양자로부터 적게도 많이도 (섞이지) 않는다. 주석과 구리(τὸν χαλκόν, b8, 청동)의 경우에 일어나는 것처럼[말이다]. (이 둘 각 각) 하나는 서로에 대해 불 분명하고 애매하게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다소 조금 겪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의] 에이도스를 받아들이기 적합(δεκτικόν, 328b11)하다는 것이 선명해지므로 [그렇다]. 바로 이것들의 경우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주석은 마치 거의 구리(청동)의 비질료적인(ἄνευ ὕλης, b12)어떤 속성인 것처럼 그리고 섞어지면서 단지 색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겪지(ἄπεισι, b13)않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것이 헤태론한 경우에도 일어난다(συμβαίνει, b14).

그렇다면 말해진 것들로부터 섞어짐은 있다는 것, 무엇이라는 것, 무엇 때문에(이유)(있다는 것), 그리고 있는 것들 중 어떠한 것들이 섞어지는(μικτὰ, b16)것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 서로에 의해 겪어지며, 잘 한계지워지고 그리고 잘 나뉘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섞어지는) 어떠한 것들이므로.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이것들은 소멸하지도, 나아가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이지도 않게 섞어졌던(μεμιγμένα, b18)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의 섞어짐은 배열도 아니며 감각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섞어지는 것은 잘 한계지워지면서 겪고 행하는 이것에 섞어지는 그러한 것일 것이며-섞어지는 것은 호모뉘마한 것에 대한(πρός ὁμώνυμον, b21)[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변경되는 섞어지는 것들의 하나 하나에 대한 섞어짐이다(ἡ δὲ μίξις τῶν μικτῶν ἀλλοιωθέντων ἕνωσις, 328b22)(327b10-328b22)"

토피카[Δ(2), 122b25-b36, Z(14), 151a20-31]번역

“나아가서 만약 종 대신에(εἰς τὸ εἶδος, 122b25)류가 놓였는가를 보라. 예를들어 연속일 때 접촉이, 또는 합침일 때 섞임이(정의됐던 것처럼), 또는 플라톤이 장소에따른 움직임을 회전움직임(φορὰν, b26)으로 정의했던 것처럼. 접촉이 필연적으로 연속이지는 않으나, 다시 거꾸로 연속은 접촉이어야 하며, 그리고 접촉하는 모든 것은 연속되는 것은 아니나, 연속되는 것은 접촉되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경우도 그와 같다. 합침 모두 각 각이 섞임은 아니며-마른 것들을 섞는 것은 합치는 것이 아니므로.-, 장소적인 변화가 모두 회전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걸어감은 회전움직임이 아니므로 [그렇다]. 거의 회전움직임은 비자발적으로 장소에서 장소로 변하는 것들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영혼을 지니지 않는 것(ἀψύχων, 122b34-35)들의 경우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류보다는 종이 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경우] 다시 그 거꾸로 되야한다(토피카, Δ(2), 122b25-b36)”.

“다시, 예를들어 생물은 몸과 영혼의 배열이다에서처럼, 만약 (정의) 전체는 이것들의 배열(σύνθεσιν, 151a20)이다 라고 말했다면, 먼저 배열의 종류(ποία, a22)를 그가 말했는지의 여부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 살 또는 뼈를 정의하면서 불과 흙과 공기의 배열이다 라고 할 때처럼 말이다. 배열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배열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길이야 어찌됐든(ὁπωσοῦν, a25) 이것들의 배열로 인하여 살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런 길로(οὑτωσὶ, a26)배열되면 살이 생성되는 반면 저런 길로 배열되면 뼈가 생성되므로 [그렇다]. 그런데 말해졌던 것들 중 어느 것도 전혀 배열과 동일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배열에는 [그] 반대 해체(διάλυσις, a28)가 (있는) 반면 말해졌던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그 반대 해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만약 그 배열 가능한 것이(τὸ σ ύνθετον, a29)이 [문제의] 배열(σύνθεσιν, a29)이라는 것 또는 (만약) 어느 (그 배열 가능한) 것도 [문제의] 배열이라는 것이 같이 설득이라면, 그런데 생물들 각 각 배열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이 문제의 그] 배열은 아니라면 알론한 것들 어떤 것도 배열 가능한 어떤 것도 배열은 아닐 것이다(토피카, Z(14), 151a20-31)”

해석에 관하여 2-4 장(16a19-17a7)